

PB-2.

우리나라 서·남해안염습지 생태계 특이성에 따른 염습지 유형 구분

이점숙¹⁾, 임병선²⁾, 조두성¹⁾, 명현호²⁾, 장면¹⁾, 이정윤²⁾

¹⁾군산대학교 생물학과 ²⁾목포대학교 생물학과

본 연구는 전라남도 여수시 들산읍 금봉리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까지 염생식물상, 종조성과 군락구조, 우점군락의 분포 현황 및 현존량등을 측정하여 염습지 특이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우리나라 서·남해안을 해안염습지와 하구염습지로 구분한후 해안 염습지는 사질성 염습지(17개 지소), 사구성 염습지(20개 지소), 점토성염습지(3개 지소)로, 하구염습지는 염소택지(10개 지소), 하구성염습지(9개 지소)로 나누어 총 59개 지소를 2003년 6월에서 2004년 2월까지 조사하였다.

해안염습지는 기질에 따라 사질성, 사구성 및 점토성으로 나눌수 있는데, 그곳의 식생 역시 그 기질에 따라 해홍나물, 순비기나무 및 칠면초로 우점군락이 뚜렷하게 구별되었으며, 하구성 염습지 역시 기질에 따라 사질성과 점토성으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는 천일사초와 지채군락이 후자는 칠면초 군락이 우점군락으로 확연하게 구별 되었고, 따라서 종조성과 우점군락의 유사도에 따라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해안성 염습지와 하구성 염습지로 구분되며, 해안성 염습지는 사질성 사구성 및 점토성 염습지로, 하구성 염습지는 염소택지와 하구성 염습지로 세분되었다.

지역별 현존식생도 작성결과, 사질성 염습지에서는 1종이 우점하는 지역에서부터 10종이 우점하는 지역까지 종다양도가 다양하였으나 그 분포면적은 5,000m²이하로 좁았으며, 사구성 염습지에서는 종다양성도 1종에서부터 6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 분포면적도 150m²에서부터 24,000m²에 이르렀다. 반면 해안 점토성 염습지에서는 칠면초가 단일우점군락으로 종조성은 단순하였으나 그 분포면적은 곰소만의 경우 14km²에 이르렀다. 염소택지 염습지에서는 우점군락이 지역별 유사하였으며 그 분포 면적 역시 800m²이하로 좁았다. 한편 하구성 염습지에서는 2종이 우점군락을 이루는 곳에서부터 다양한 종조성을 이루는곳 까지 다양하고 그 분포면적도 600m²에서부터 6km²에 이르렀다. 따라서 염습지 유형별로 염생식물 분포 양상의 특이성을 뚜렷하였다.